

보도 일시	2023. 1. 29.(일) 11:00 < 1.30.(월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27.(금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송현주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 홍길표 (044-203-4334)

**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
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재원 중점 투입**

- 작년 956억원 → 올해 1,454억원, 작년 대비 52% ↑
-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과 전기추진 기자재 국산화 등 73개 과제 중점지원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아하 산업부)는 1월 30일(월),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「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」을 공고한다.
 - 동 계획은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‘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·보급 기본계획(2021~2030)’에 근거하고 있다.
 - 정부는 국제해사기구(IMO)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.
 - * 세계 친환경선박 발주 비중(%) : (‘19) 29.9 → (‘20) 30.4 → (‘21) 32.2 → (‘22) 62.0
-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 ‘22년 956억원에서 1,454억원으로 52% 크게 증가하였으며, 산업부·해수부·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 - 특히,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,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.
-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(722억원), 시험평가(319억원), 실증지원(350억원), 인력양성(63억원)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.

< '23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 주요 내용 >

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 총 1,454억원 (73개 과제)	1.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	722억원
	① 수소·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	: 329억원
	② 친환경 기자재 등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	: 144억원
	③ LNG 선박 기술 고도화·전기추진 기자재 국산화	: 249억원
	2.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	319억원
	① 시험·검사기준 마련	: 110억원
	② 시험·평가 시설 구축	: 209억원
	3.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(그린쉽-K) 추진	350억원
	① 그린쉽 K 시범선박 건조	: 195억원
	② 해상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지원	: 155억원
	4. 전문인력 양성	63억원

- ①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·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9억원, LNG 선박·전기추진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풍력추진 보조장치 등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에 393억원을 지원,
 - * (23년 신규)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, 선상 CO2 포집 장치 개발, LNG 기화가스 예측기술 등
- ②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마련, 저탄소·무탄소선박 시험평가 방법개발 등 시험·검사기준 개발에 110억원, 수소 추진선, 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등에 대한 시험·평가 시설구축에 2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 - * (23년 신규)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,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지원센터, 선박 온실가스 통합관리 등
- ③ 실제 현장에서의 실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수소·암모니아 시범선박 건조에 195억원, 해상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지원에 1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 - * (23년 신규) 암모니아 혼소 추진 선박 실증(규제자유특구-경남)
- ④ 특히, 미래 선박 기술개발의 핵심인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친환경·스마트선박 분야 석·박사급 양성지원과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박 엔지니어링 지원사업에도 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.

-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“미래 선박시장은 국제해사기구(IMO)의 친환경 규범 정립 등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친환경선박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” 라고 언급하고,
 - “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며, 미래 선박 시장 선점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.” 고 강조했다.
- 한편, 산업부는 미래 선박 시장의 확실한 준비와 함께 현재 조선산업이 당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다.
 -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(1.6일)하고, 비자발급 국내 절차 단축, 도입 비율 확대, 비자 심사 지원인력 파견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에 원활한 인력 도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,
 - 조선업 밀집 지역 5곳(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)에 인력수급 애로해소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위해 오늘(1.30)부터 ‘현장으로 데스크’ 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 - 산업부는 현장에서 나온 건의나 애로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하며 ‘현장 산업부’ 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